

1960년대 정신사와 신생(新生)의 토포스(topos)*

- 4·19 혁명과 한일회담 반대운동 전후 신동엽 시의
변화양상

고 봉 준**

차 례

- | | |
|---|---|
| 1. 들어가며 | 4. 신생(新生)의 토포스(topos): 4·19
이후 신동엽 시에 나타난 이상적
세계의 이름들 |
| 2. 1960년대와 '민족' 담론: '중립화통
일론'과 '한일협정 반대운동'을 중
심으로 | 5. 나오며 |
| 3. 전쟁 체험과 근대 문명에 대한 부
정: 1960년 이전 신동엽의 시 | |

국문초록

한국문학사에서 1960년대의 위상은 각별하다. 1960년대는 4·19 혁명
이 초래한 '자유'와 '민족'에 대한 대중의 갈망과, 5·16 군사정변을 주도

* 이 논문은 2019년 11월 22일 신동엽 기념사업회가 주최한 '신동엽 시인 50주기
학술대회Ⅱ: 한일협정과 한국문학 그리고 기록'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조교수.

한 세력의 기술주의, 이 두 개의 근대화 모델이 격렬하게 충돌한 시기였다. 사회변동의 현실은 문학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문학은 이념적 금기를 넘어 남북통일과 이상적 세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것이 1960년대였다. 이런 이유로 김수영과 신동엽은 1960년대 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으로 평가되어 왔다. 이 논문은 1960년대 신동엽 시의 특징적인 면모를 4·19혁명과 한일회담 반대운동으로 대표되는 사회변화와 연계하여 논의한다. 1960년 이전까지 신동엽의 시는 부정적 현실인식을 관념적 차원에서 형상화하거나 현실극복의 의지를 신념의 차원에서 진술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이때의 부정적 현실인식이란 ‘전쟁’ 경험에서 획득한 것이다. 반면 1959년 등단 무렵에 이르면 신동엽의 시는 역사의식을 획득한 모습을 띠기 시작한다. 이 무렵 신동엽은 자신이 생각한 이상적 세계를 ‘정전지구(停戰地區)’라고 표현했는데, 4·19 혁명 이후에는 그것을 ‘완충지대’라고 바꾸어 표기했다. 그리고 1964년 『껍데기는 가라』를 처음 발표할 때에는 그 이상적 세계를 ‘중립’이라고 표현했다가 1968년에 쓴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에서는 함축적 의미가 동일한 이상적 세계를 ‘완충지대, 중립지대, 평화지대’의 세 가지로 동시에 표기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면 4·19 혁명 이후 ‘정전지구’가 ‘완충지대’로 바뀌었고, 한일회담 반대운동 이후 ‘완충지대’가 ‘완충지대, 중립지대, 평화지대’로 다양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듯하다. 신동엽이 ‘중립’을 노래할 시기에 최인훈 또한 소설 연재를 통해 중립의 꿈에 대해 진술한 것을 보면, 신동엽이 시기에 따라 이상적 세계의 명칭을 바꾼 것은 문학에 대한 현실의 영향 탓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정전지구, 평화지대, 완충지대, 중립, 자유, 민족, 신동엽.

1. 들어가며

한국문학사에서 1960년대의 의미는 각별하다. 1960년대는 “지금의 한국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정치적·경제적·문화적 토대의 기본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점”¹⁾이고, “4·19의 정신주의 계열과 5·16의 기술주의 계열 사이의 길항관계”²⁾로 요약할 수 있는 한국의 ‘근대화’가 본격화된 시기이다. 1960년대 문학은 이 ‘근대(화)’라는 낯선 조건과의 길항 관계로 전개되었고, 그것은 4·19 혁명(이하 ‘4·19’), ‘5·16 군사쿠데타’, ‘한일협정 반대’ 등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의 역사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주지하듯이 60년대 문학은 50년대를 지탱해온 체제로부터 단절점을 상상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아! 50년대’라는 감탄사 없이는 시작할 수 없다고 고은은 그의 『50년대』에서 강변했지만 최인훈과 나의 세대, 그러니 우리의 세대는 감탄사가 의문사로 바뀐 자리에서 비롯되었다.”³⁾ 이 진단에 따르면 1960년대 문학은 ‘50년대’에 대한 의심으로 시작되었으니, 그것은 전후 체제를 떠받치던 ‘반공’에서 벗어나 ‘자유’로의 이행으로 구체화되었다. 이것은 4·19라는 계기가 없었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시인 김수영이 증언하듯이 4·19로 얻은 ‘자유’(또는 ‘자유’를 논할 자격)는 60년대 내내 불안정한 상태였다. 게다가 ‘자유’는 이승만이 정권을 유지·확립하기 위해 강조한 가치의 하나였으니 ‘자유’를 60년대 문학의 고유한 특징으로 설정하는 데는 한계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한편 1961년 이후에는 ‘민족’, ‘조국’ 등의 단어들도 전면화하면서 반외세, 민족통일, 민족자립 같은 새로운 인식들이 제시되기 시작했다. 실제

1)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편, 『1960년대 문학과 문화의 정치』,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5, 3쪽.

2) 임환모 편, 『1960년대 한국문학』, 태학사, 2015, 6쪽.

3) 김윤식, 『‘우리’ 세대의 작가 최인훈』, 최인훈, 『충독의 소리』, 문학과지성사, 1999, 443쪽.

로 1960년대에 새롭게 등장한 ‘민족’이라는 개념은 이승만 정권 때에는 불온한 것으로 간주되는 말이었다. 1960년 9월 24~25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전국학생통일문제 토론회’는 이러한 4·19와 ‘민족’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⁴⁾ 요컨대 4·19가 상징하는 1960년대의 정신사는 ‘자유’와 ‘민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맥락화할 수 있거니와, 김수영과 신동엽이 1960년대 문학의 기념비로 평가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논의에서 1960년대 시와 4·19의 영향 관계는 주로 김수영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4·19를 통일운동의 기원으로 인식하고 신동엽의 문학을 중심으로 논의한 1980~90년대의 관점과는 뚜렷하게 구분된다. 추측컨대 그것은 민족 문제, 특히 ‘통일’이 문학 담론과 지성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고, 동시에 신동엽보다는 김수영에 관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증가하면서 발생한 문제일 듯하다. 이 논문에서는 4·19의 정신사가 ‘자유’의 문제로 한정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신동엽 문학을 중심으로 1960년대의 사회변화가 문학적 상상력에 끼친 영향과, 정치적 현실에 대한 시의 응전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시각이 4·19의 정신사를 ‘자유’와 ‘민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입장이나, 신동엽 문학을 ‘민족’ 담론으로 환원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은 아니다.⁵⁾ 최인훈이 『광장』을 발표하면서 남긴 소감(“자유를 ‘사는 것’을 허락치 않았던 구정권하에서라면 이런 소재가 아무리 구미에 당기더라도 감히 다루지 못하리라는 걸 생각하면 저 빛나는 4월이 가져온 새 공화국에 사는 작가의 보람을 느낍니다.”⁶⁾)에서 확인되듯이 4·19 이후에는 ‘민족’ 문제에 관한 담론의 한계가 곧

4) 고려대학교 정경대학생위원회가 개최한 이 대회는 당시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이 대회는 각 대학의 저명한 교수와 언론인 23명이 심사위원을 맡았고, 조기준(고려대 정경대학장), 유진오(고려대 총장), 이상은(아세아문제연구소장), 조운제(성균관대총장 겸 대한교수협회장) 등이 격려사를 했다.

5) 이에 대해서는 김희정, 『신동엽 시에 나타난 정치적 진리 절차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2019, 3쪽 참고.

6) 『새벽』, 1960년 11월호, 239쪽.

‘자유’의 한계선으로 간주되었다. 최인훈의 『광장』이 갖는 문학사적 의미가 ‘자유-분단-민족’ 문제를 연속적 관계로 이해했다는 데 있고, 김수영이 ‘김일성 만세’라는 시적 진술을 중시하며 참여시 논쟁에 뛰어든 이유도 그것이 ‘자유’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2. 1960년대와 ‘민족’ 담론: ‘중립화통일론’과 ‘한일협정 반대운동’

‘4·19’와 ‘한일협정 반대운동’은 1960년대 정신사를 규정하는 사건들이다. 주지하듯이 4·19는 분단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입장인 ‘북진통일론’을 뛰어넘는 새로운 상상의 장을 제공했다. 혁명의 주축인 대학생들이 개최한 ‘전국학생통일문제 토론회’가 대표적 사례이다. 이 토론회의 주조(主潮)는 ‘중립화통일론’⁷⁾이라고 개념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통일’과 ‘중립’을 연결시키는 이런 사고는 4·19 이전에는 금기였다.⁸⁾ 1960년대의 중립화통일론을 설명하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이 논의가 당시 민주당 원내부총무 맨스필드(Mike Mansfield)가 상원외교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반도의 분단 문제를 오스트리아식 중립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재일교포 김삼규가 1960년 6월 일시 귀국하여 다양한 신문과 잡지 등에 ‘중립화통

7) 약 60%의 학생들이 ‘중립화통일론’을 주장했다. 엄상윤, 『제2공화국 시대의 통일 논쟁』, 고려대 박사논문, 2001, 98쪽 참고.

8) 김수영은 1968년 1월 『사상계』에 발표한 『지식인의 사회참여』에서 이렇게 썼다. “D신문이 정월 초하룻날에 실은 J.B.디로젤 교수의 『민족주의의 장래』라는 논설은, 개발도상국에 있는 국가들의 ‘적극적 중립주의’의 당위성을 논한, 우리나라의 필자라면 좀처럼 쓸 수도 없고 실리기도 힘들만한 내용의 것인데, 이것을 비롯한 10편 가량의 해외 필자의 건전한 논단 시리즈를 꾸민 데 대해서는 경하의 뜻을 표하면서도, 어쩐지 한쪽으로는 365일의 지나친 보수주의의 고집에 대한 속죄 같은 인상을 금할 길이 없다.” 이영준 편, 『김수영 전집 2 산문』, 민음사, 2018, 297쪽.

이론'의 정당성을 담은 글을 발표하고, 재미교포 김용중의 '선중립·후통일' 등이 가세함으로써 '중립(화)'을 통한 통일이라는 문제가 구체화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중립화 논의는 비단 정치·사상의 영역만이 아니라 당대의 문학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1961년 4월 국제신보사 논설위원이던 소설가 이병주가 편집·출판한 『중립의 이론』(셋별출판사)도 그 영향의 산물이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5·16 군사쿠데타(이하 '5·16')로 인해 단절되었으니, 이병주는 5·16 직후 이 책 때문에 '혁명재판'에 넘겨졌다.

4·19 혁명은 '자유'의 문제에서 시작해 점차 '민족'과 '분단' 문제로 확장되었다. 4·19 1주기를 맞이하여 서울대학생회가 발표한 선언문("3,4월 항쟁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봉건, 반외압 세력, 반매판자본 위에 세워지는 민족혁명을 이룩하는 길뿐이다"⁹⁾), 같은 시기 서울대 민통련('민족통일연맹')이 발표한 4·19 시국선언문("조국 분단의 전책임은 국제 공산주의와 독점자본주의 및 그들의 추종자인 반민족적 사대주의자들의 냉전 청부행위에 존재한다고 규정한다"¹⁰⁾)은 이러한 변화의 단적인 증거이다. 특히 민족과 분단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한일국교정상화, 즉 '한일협정' 문제에서 정점에 이르렀다. 이 시기의 한일협정은 일본이 동북아에서 강력한 반(反)공산주의 동맹이 되어주기를 원한 미국의 의지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신식민주의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1965년의 한일협정은 경제부흥과 성장을 통해 자신의 집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상쇄시키려는 박정희의 욕망, 극동지역의 안보 책임을 일본에 전가하려는 미국의 전략, 그리고 1950~60년대 대호황으로 과잉자본을 투자할 해외시장을 찾던 일본의 관심이 일치점을 이룸으로써 가능했다. 그리하여 1962년 7월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에 청구권의 명목에 구애받지 말고 일본의 경제 원조를 받아들이라고 전하고, 만

9) 『민족일보』, 1961.4.20.

10) 『민족일보』, 1961.4.20.

약 응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원조를 다시 고려하겠다고 압력을 가할 것”¹¹⁾이라는 메시지를 한국에 전달했고, 8월 23일에는 케네디 대통령이 직접 박정희에게 친서를 보내 한일회담 개최를 요구했다. 이에 박정희 정권은 한반도 침탈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원하는 국민의 뜻과 반대로 1962년 11월 12일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종필과 일본 외상 오하라의 비밀 회담을 통해 일본이 한국에 ‘무상 공여 3억 달러, 유상정부 차관 2억 달러, 민간차관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진행했다. 박정희의 이러한 정치적 판단은 “식민지 피해 청산 문제를 단순한 채무변제 성격의 ‘청구권’으로 변질시켰다. 그리고 과거 청산이라는 우리 민족의 절체절명의 과제를 외면하고 전범국 일본에 면죄부를 안겨 주었다.”¹²⁾ 이후 이 회담의 내용은 1965년 공식 회담을 거쳐 확정되었고, 각계각층의 비준반대 투쟁에도 불구하고 1965년 8월 16일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었다. 이후 비준동의안 철회를 요구하는 대중의 저항이 커지자 박정희는 8월 26일 서울 일원에 위수령을 선포함으로써 폭압적인 통치를 예고했다.

1960년대 ‘한일협정’ 국면에서 발생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으로 ‘6·3투쟁’을 꼽을 수 있다. 이 사건은 1964년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여 당시 대학생, 시민, 재야인사 등이 주도하여 일으킨 반일·반정부 투쟁이다. 1963년 10월 15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윤보선을 누르고 당선된 박정희는 1964년 1월 10일 연두교서에서 “강력한 경제외교를 적극 추진하여 보다 나은 조건하에서 보다 많은 외자를 확보”할 것이며, “자유진영 상호간의 결속의 강화로써 극동의 안전과 평화유지에 기여한다는 대국적 견지에 입각”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한일회담을 타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3월 9일 야당을 중심으로 ‘대일굴욕외교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이 단체는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전

11) 김기선, 『한일회담반대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5, 51쪽.

12) 위의 책, 110쪽.

국 12개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한일회담 반대집회를 열었다. 한편 3월 24일에는 서울대 문리대에서 한일국교정상화의 주역인 김종필과 일본 수상 이케다의 허수아비를 불태우는 화형식이 개최되었다.¹³⁾ 또한 1964년 5월 20일 서울대 문리대 교정에서는 서울대, 동국대 등 5개 대학 한일굴욕회담반대투쟁위원회의 연합조직 한일굴욕회담반대학생총연합회(학총련)가 거행하는 민족적민주주의장래식이 진행되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민족적 민주주의’는 김동리의 형 김범부가 5·16 직후 박정희에게 제안한 것으로, 훗날 박정희는 이것을 ‘자유민주주의’로 바꾸었다. 이 집회에서는 민주주의의 죽음을 애도하는 조사(弔詞)가 낭독되었는데, “시체여! 너는 오래 전에 이미 죽었다. 죽어서 썩어가고 있었다. 넋 없는 시체여! 반민족적 비민주적 ‘민족적 민주주의’여. 네 주검의 악취는 ‘사쿠라’의 향기가 되어”로 시작되는 이 조사(弔詞)의 집필자가 바로 김지하였다.

이 사건을 분기점으로 대중의 반일(反日) 감정은 정권 타도로 방향이 바뀌었다. 이러한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1965년 4월 3일 한일기본조약과 부속협정에 가조인했고, 6월 22일에는 동경(東京)의 수상 관저에서 정식 조인되었다. 이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앞두고 각계각층에서 광범위한 반대운동을 펼쳤는데, 7월 9일에는 문인 82명이 한일협정 파기를 주장하는 성명을, 12일에는 서울 소재 대학 교수 354명이 한일회담 내용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때 신동엽도 문인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다수의 선행연구가 이 성명서에 서명한 신동엽의 행위를 반

13) 이때 서울대 학생들이 채택한 결의문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1. 민족 반역적 한일회담을 즉각 중지하고 동경 체재 매국정상배는 일로 귀국하라. 2. 평화선을 침범하는 일본어선을 해군력을 동원하여 격침하라. 3. 한국에 상륙한 일본 독점자본의 척후병을 축출하라. 4. 친일 추구하는 국내 매판 자본가를 타살하라. 5. 미국은 한일회담에 관여하지 말라. 6. 제국주의 일본 자민당 정권은 너희들의 파렴치를 신의 양화를 입어 속죄하라. 7. 박 정권은 민족 분노의 표현을 날조 공갈로 봉쇄치 말라. 8. 오늘 우리의 쫓기는 ‘신제국주의자’에 대한 반대투쟁의 기점임을 만천하에 공포한다.

외세 또는 민족주의적 의식의 발로로 간주함으로써 그것을 1960년대 신동엽의 시세계의 연장선으로 해석한다. 이 성명은 휴전 이후 최초로 행해진 문인들의 정치적 의사표시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 성명에는 소위 저항적 민족주의자나 참여문학 진영만이 아니라 당시 『사상계』의 편집위원이었던 조지훈을 비롯하여 예술원장 박종화, 그리고 양주동, 이현구, 황순원, 박두진 등의 문인이 대거 참여했다. 전 국민적 저항으로 이어진 이 투쟁에는 교수단, 종교계, 변호사단체, 역사학회, 예비역 장성 모임 등 각계각층이 참여했으므로 서명 자체를 반외세 민족의식의 근거로 내세우기는 어렵다. 다만 한일협정의 비준에 대한 국민적 저항, 특히 보수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인들 상당수가 이 반대성명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이 시기에 ‘민족’ 담론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으며, 60년대 문학 또한 그 영향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3. 전쟁 체험과 근대 문명에 대한 부정: 1960년 이전의 신동엽 시

60년대 문학의 성격은 1950년대를 짓누르고 있던 냉전 이데올로기, 즉 ‘반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최인훈의 『광장』이 60년대 문학을 이야기할 때 맨 처음에 놓이는 이유도 그것이 냉전의 양극인 남과 북이 아니라 ‘중립’을 선택한 주인공을 등장시켰기 때문이다. ‘북진 통일’이 모토였던 남한에서 1950년대까지 ‘중립’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사실상 공산주의와 동일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정치적 현실에 대해 60년대 문학은 ‘냉전’과 ‘반공’ 너머의 ‘이상적 세계’¹⁴⁾에 대한 상상으로 응전했다. 앞에서 밝혔듯이 4·19가 촉발시킨 이 세계는 흔히 김수

14) 신동엽의 시에 나타난 유토피아의 문제는 김경복, 『신동엽 시의 유토피아 의식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64집, 한국문화회, 2013 참고.

영이 노래한 ‘자유’로 환원되는 경향이 있지만 60년대 당시 ‘자유’의 문제가 냉전의 산물인 분단을 극복하는 일, 즉 통일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1960년대 문학사에서 신동엽의 위치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요컨대 ‘자유’의 문제를 중심으로 바라보면 김수영이 ‘4·19 시인’이지만, ‘통일’과 ‘민족’ 문제를 중심으로 바라보면 ‘4·19 시인’은 신동엽이라고 말할 수 있다. “누구보다도 4월 혁명 계승의 문학을 끌어올림으로써 한국 문학 자체에 새로운 지평을 띄우게 하였던 것은 신동엽이었다.”¹⁵⁾

4·19 이후 신동엽 시의 변모양상을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초기작들을 검토해야 한다. 신동엽은 195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장시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가 입선되어 등단해 1969년 4월 간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약 10년 간 문단활동을 했다. 그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60년대 시인’이었으나, 실제 그의 시 창작은 해방기부터 시작되었다. 구체적인 창작시기가 밝혀진 작품을 기준으로 삼으면 대략 1947~48년 무렵부터 시를 쓰기 시작한 것으로 추측된다. 신동엽이 전주사범학교에 입학한 것이 1945년 4월이고 무단 장기 결석을 이유로 퇴학당한 것이 1948년 늦가을이니, 전주사범학교 재학 당시, 특히 퇴학을 전후한 시기에 시를 쓰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는 좌우의 이념 갈등이 학생들에게까지 확대된 상태였으므로, 신동엽의 시 창작은 정치적 갈등 상황 속에서 시작된 셈이다. 일설에 따르면 전주사범학교 재학 당시 신동엽은 좌우의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무정부주의를 지지했고, 그로 인하여 좌우의 모두에게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한다.¹⁶⁾

한국전쟁 이전에 창작된 20여 편의 시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1)부정적인 현실이 극복되고 희망적인 세계가 도래할 것에 대한 믿음 (2)고독, 외로움의 등의 감정 (3)자연적 소재를 활용하여 풍경을 노래한 작품을

15) 박태순·김동춘, 『1960년대의 사회운동』, 까치, 1991, 266쪽.

16) 김응교, 『좋은 언어로』, 소명출판, 2019, 44쪽.

주로 썼는데,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경향은 (1)이다. 가령 어떤 이의 죽음을 추모¹⁷⁾하면서 “이름의 열매가 맺는 날/푸른 하늘이 트이는 날/오 빛나는 나라 노래를 부르자”(『바치는 노래』)라고 노래하거나, “침략주의 최후의 발악”을 이겨내어 “탁류(濁流) 수랑 한구석에서/새아침을 위한 화약이 되리라.”(『수랑 구석』)처럼 역사를 위해 희생할 것을 다짐하는 작품, 농촌의 초가집을 “위대한 혁명아의 모태/반항과 투쟁 그리고 창조의 어머니”로 인식하고 “눈물과 도적 몰려가버린 그날의 들판 위에서/승리의 깃발 추켜들고 태양처럼 빛나거라.”(『초(草)집』)처럼 희망을 명령의 방식으로 노래한 작품들이 대표적이다. 혁명 또는 새로운 질서의 도래에 대한 희망은 “오 너는/이 죽음과 신음의 발판을 파괴하고/거동과 자유 건설과 희망의 새봄을/연출시키려는 위대한 혁명아”(『혁명아(兒)』), “피와 땀으로 아로새긴 인민 항쟁의 날”(『이 땅의 이 날』), “새로운 사회를 꿈꾸던 굳건한 동무(…중략…) 비록 현실에서 울지언(정) 과거를 추억하고 미래를 동경하며 고뇌 많은 현실이 미래에 행복될 것을 믿음으로써 굳게 오늘을 지킬 수 있지 않은가…….”(『추상(追想)』) 같은 표현에서 확인되듯이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좌익 문인들의 수사(修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 마찬가지로 내용 또한 의지와 믿음을 앞세운 관념적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한국전쟁 이후 신동엽의 시는 뚜렷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전쟁’ 체험의 직접적인 영향 때문으로 추측된다. 가장 뚜렷한 변화는 관념적으로 표현되던 부정적 현실이 구체적 맥락과 형상을 획득하기 시작했다. 이는 ‘전쟁’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불러온 비극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가 없지 않지만 50년대 후반까지 신동엽의 시세계는 실존적 층위에서 발화되는 고독과 허무의 감정, 그리고 역사적·현실적 층위에서 발화되는 ‘전쟁’의 참상과 부정적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다란 줄기를 형성하고 있다. 가령 시

17) Y는 여운형의 이니셜로 추정됨.

인은 『서시』에서 자신을 “원자탄에 맞은 사람”, “머지않아 나는 아주/죽히우러 가야만 할 사람”으로 제시하면서 후손들을 향해 “구더기./그런 역사와 함께 멸망한 나의/무덤, 침 한번 더 뱉고/다시 보지 말아져라.”라고 충고한다. 비슷한 시기에 창작된 작품들에서도 “다신 태어나지 않을 래요/어서 데려가주세요”(『기원』), “내가 살아 있대서 영광스러울 게/무에 있느냐”(『헛소리』), “내사 차라리 없어져나 봐야겠다”(『밤의 기도』),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은 하나의 예외다”(『예외 또는 말세』)처럼 죽음에의 의지를 드러내거나, “한 마음/가없어라/나약한 사람 위에서/살아가는……//가다가 스러질/가난한 마음이어.”(『한 마음』)처럼 나약하고 가난한 마음의 무상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현실 인식은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에서 두드러진다. 예를 들면 『어느 소녀의 수기(手記)』에서 시인은 한 소녀의 목소리를 빌려 “밤이나 낮이나 나라를 위한다고 줄달음치던/우리 아범 내무서에 갇혀 학살당하시고/한사코 조국을 침략자의 마수로부터 엄호해야 한다고/주리가 틀리는 기한(飢寒) 속에서도 절규하던 우리 오빠/빨갱이로 몰려 형무소 속에서 요사(夭死)”하는 시대적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특히 이 시는 “개기름 번질한 마카오 신사와 표령의 마카오 아가씨들을 실은/XX부대 지프가 빈 위스키 병과 초콜릿 갑과/음탕한 깔깔 웃음을 뿌리면서 어데론가 사라질 때에”처럼 제국주의 군대의 부도덕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폭격으로 쓰러진 집터에선
능굴이가 원통히 울었다.

하늘 멀리서 제트기들이 번갯불처럼 지나다니고
어데선가 송장이 썩는다
낮익은 얼굴들이 무더기로 쓰러져
썩는 내음새가 국화 향기보다 진하다.
다 같이 압록강 이남에서 사는
조선 사람들이었다.

가는 곳마다
산골에서도 평야에서도
도시에서도, 마을은 모두 폐허로 화하고
젊은 아들딸들은 이편으로 저편으로
총들을 얹매고 없어져버리었다.

가다가다 살아남은 마을엔
질병과 기아와 상잔의
어두운 살풍만이 배회했다.

평화를 사랑하는 조국
조선 사람아
너는 어찌하여
너는 어찌하여 다 같이 조선말을 하는 얼굴 속에서
원수를 찾아내어야 하며
형제와 애인의 인연에
탄약을 썩여야만 하느냐

- 「압록강 이남」 부분

『신동엽 시전집』 4부에 실려 있는 이 시는 구체적인 창작시기가 알려 지진 않았으나 한국전쟁에 대한 신동엽의 인식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전쟁’을 모티프로 하고 있는 50년대 작품들과 나란하게 놓을 수 있다. 전집 4부에 수록되어 있는 50년대 시들에서 시인은 ‘전쟁’을 기계 문명과 무기가 주도하는 폭력의 세계로 형상화하고 있고, 1963년 출간된 시집 『아사녀』에서는 그와 함께 ‘가난’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한다. 요컨대 신동엽에게 1950년대는 ‘전쟁’의 시대였고, 그 상상력의 이면에는 ‘가난’, ‘기계문명’, ‘제국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한국전쟁은 남북 간의 ‘이념’ 대립이 아니라 “조선을 저의 방패로 삼으려 하는” 세력이 일으킨 사건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한국전쟁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4·19 이전에는 상상할 수는 있어도 결코 발

설할 수는 없는 것이었으니, 신동엽의 50~60년대 시편들은 이 금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이 시에서 전쟁은 ‘폭격’, ‘제트기’, ‘총’, ‘탄약’으로 상징되는 기계문명의 산물로 그려진다. 1951년 11월에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쓴 『만약 내가 죽게 된다면』에서 시인은 자신의 죽음이 “독재정치의 희생이 된 내 생명은/신성한 평화를 위하여 주춧돌”이 될 것을 예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전쟁의 피해자는 “자유로운 하늘이여 /자유로운 원시림이여/공화국기와 태극기가 번갈아 올라가는/죄 없는 나의 고향 아득한 한촌이여”처럼 남과 북 가운데 어느 하나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러한 인식에 의하면 한국전쟁은 ‘조선’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는 “이방(異方) 권력”(『내 가슴속에서 핏덩이가 미치는 것은』)이 “삼천리강토를 침략”(『압록강 이남』)한 침략전쟁이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농경적 세계로 그려지는 ‘조선’은 침략자인 제국주의의 기계문명과 첨단 무기로 인해 파괴되는 죽음의 대상이다. “보라 삼천리강산이/모조리 불타 없어지고/죽어가는 백성들은 수십 없이 끌리어/시산(屍山)은 이국 궁전을 위하여/제방이 되며 있거늘”(『내 가슴속에서 핏덩이가 미치는 것은』). 이러한 인식은 “다 같이 압록강 이남에서 사는/조선 사람들이었다”라는 표현처럼 남북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하고, 전쟁의 종식은 침략자를 조선에서 몰아내는 것으로 완수된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역사를 대하는 신동엽의 인식은 냉전적 사고에 묶여 반공주의를 재생산한 50년대의 반공문학과 차원이 달랐다.

쉬고 있을 것이다.

아시아와 유럽
이곳저곳에서
탱크부대는 지금
쉬고 있을 것이다.
일요일 아침, 화장한

토오코오 교외 논둑길을
한국 하늘, 어제 날아간
이국(異國) 병사는
견고.

히말라야 산록(山麓),
토막(土幕) 가 서성거리는 초병은
흙 묻은 생고구말 벗겨 넘기면서
하얼빈 땅 두고 온 눈동자를
회상코 있을 것이다.

순이가 빨아준 와이셔츠를 입고
어제 의정부 떠난 백인 병사는
오늘 밤, 사해(死海) 가의
아스라엘 선술집서,
주인집 가난한 처녀에게
답을 주고.

- 「풍경」 부분

‘전쟁’을 기계문명에 의한 파괴 행위로 간주하는 문명비판과 반(反)제국주의적 인식은 신동엽의 1950~60년대 시 전편에 걸쳐 반복된다. 다만 시집 『아사녀』에서는 이러한 인식과 함께 ‘가난’의 문제가 한층 강조되고 있으며, 시집의 표제가 암시하듯이 역사적 내러티브를 구축하려는 의지가 개입하고 있다. 시인은 자신이 경험한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넘어 사회적·정치적 사건들을 역사적 맥락에서 재전유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그의 시는 폭력과 죽음에 대한 형상화를 넘어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을 찾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인용시 「풍경」은 1960년 2월에 처음 발표된 작품으로, 시집 『아사녀』에는 「진달래 산천」과 짝을 이루어 수록되어 있다.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은/산으로 갔어요”라는 유명한 구절을 포함하고 있는 「진달래 산천」에서 시인은 ‘장

총, ‘탄환’, ‘비행기’, ‘기관포’ 같은 무기를 등장시켜 한반도의 비극적 상흔에 대해 진술하고 있으며, 『풍경』에서는 ‘탱크부대’, ‘상륙용 보트’, ‘제트 수송편대’ 같은 강대국의 무기와 ‘이국(異國) 병사’, ‘백인 병사’ 등의 군사적 주체들이 “아시아와 유럽”, “토오쿄오 교외 논둑길”, “히말라야 산록(山麓)”, “하얼빈”, “이스라엘 선술집”, “지중해의 바닷가”로 상징되는 지구촌 곳곳을 누비는 모습을 통해 전쟁의 비극이 세계화, 지구화된 상태를 증언한다. 흔히 탈식민적 시선 내지 ‘제3세계적 인식’¹⁸⁾의 형상화로 평가되는 이 작품들에서 신동엽은 침탈의 대상이 되는 인간-주체를 가난하고 순박한 존재로 그린다. 더욱 중요한 점은 “햇빛 맑은 그 옛날/ 후고구려 적 장수들이/의형제를 문던/거기가 바로/그 바위라 하더군요”(『진달래 산천』)처럼 현재의 시공간에 역사적 맥락을 겹쳐서 인식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신동엽의 시에서 역사적 시선은 4·19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시는 물론 등단작을 포함하여 1950년대 말에 쓴 작품들에서 역사의식이 뚜렷하게 확인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4·19보다는 역사학을 전공한 개인적 이력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러한 역사의식과 4·19가 촉발시킨 ‘민족’ 문제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이 결합하여 이후 신동엽의 60년대 시세계를 이끌었던 것이다.

4. 신생(新生)의 토포스(topos):

4·19 이후 신동엽 시에 나타난 이상적 세계의 이름들

신동엽은 1963년 한일회담 정국에 출간된 첫 시집에 ‘아사녀’라는 제목을 붙였다.¹⁹⁾ 앞에서 살폈듯이 신동엽은 5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 전

18) 채광석, 『민족시인 신동엽』, 구중서·강형철 편, 『민족시인 신동엽』, 소명출판, 1999, 159쪽.

19) 신동엽의 시와 한일협정의 문제를 논의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최현식, 『(신)

쟁을 포함하여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역사적 맥락에서 사유하는 역사적 안목을 획득했고, 이러한 역사의식은 4·19를 거치면서 한층 분명해졌다.²⁰⁾ 그는 1960년 7월 출간된 『학생혁명시집』에 『아사녀』를 발표했고, 1967년에 발표한 『껌테기는 가라』에서는 “아사달 아사녀”가 맞절하는 “중립(中立)의 초레칭”에 이상적 가치를 부여했다. 전자(前者)에서 시인은 “4월 19일, 그것은 (...중략...) 아름다운 치맛자락 매듭 고운 흰 허리들의 줄기가 3·1의 하늘로 솟았다가 또다시 오늘 우리들의 눈앞에 솟구쳐 오른 아사달(阿斯達) 아사녀의 몸부림, 빛나는 양가슴과 물굽이의 찬란한 반향이었다.”처럼 4·19를 3·1운동의 연장선으로, 지배 권력에 대한 민중의 저항을 “아사달 아사녀의 몸부림”으로 규정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1963년 11월 『사상계』에 발표한 『주린 땅의 지도(指導) 원리』에서는 아사달과 아사녀의 ‘사랑’을 이상적 상태로 형상화하고 있다. ‘아사녀’에 대한 신동엽의 관심은 4·19 직후에 시작되어 1967년까지 이어졌으니 사실상 60년대 내내 이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신동엽에게 있어서 ‘아사녀’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의 시에서 ‘우리가’ “국가의 부정성에 반(反)하는 긍정성을 ‘우리’의 집단적 정체성”²¹⁾으로 표현한 가상의 공동체라면, ‘아사녀’는 4·19 혁명을 통해

식민주의의 귀환, 시적 응전의 감각: 1965년 한일협정과 한국 현대시, 『현대문학의 연구』 70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20, 241-321쪽.; 박지영, 『제3세계로서의 자기 정위(定位)와 ‘신성(神聖)’의 발견: 1960년대 김수영·신동엽 시에 나타난 정치적 상상력』, 『반교어문연구』 39호, 반교어문학, 2015, 465-513쪽.

- 20) 하상일은 한일협정과 베트남 파병 문제를 중심으로 신동엽 문학을 해석함으로써 신동엽 문학이 지닌 신식민주의 신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신동엽의 문학적 지향을 1960년대에 발행된 다수의 진보적 문학잡지들과의 관계망 속에서 포착할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성과이다. 반면 이 논문에서는 한국전쟁을 경험하면서 신동엽이 획득한 전쟁, 기계 등에 대한 반근대·반문명 의식이 더욱 핵심적인 문제라고 판단했으며, ‘농경-평화-민족’으로 이어지는 시적 상상력이 신동엽의 본질적인 지향이라고 생각하여 ‘4·19’와 ‘한일협정’을 중심에 두었다. 하상일, 『신동엽과 1960년대 문학』, 『비평문학』 65집, 한국비평문학회, 2017, 255-279쪽 참고.
- 21) 강계숙, 『1960년대 한국시에 나타난 윤리적 주체의 형성과 시적 이념』, 연세대

발견한 ‘혁명의 주체=민중’의 기호였다.²²⁾ 이처럼 1960년대 신동엽의 시 세계는 ‘아사녀’라는 기호를 중심으로 한쪽에는 동학농민혁명을 민중적 관점에서 형상화한 『금강』(1967)의 세계가, 다른 한쪽에는 인류의 역사를 대지의 사유에 의거하여 재해석한 산문 『시인정신론』(1961)의 세계가 위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아사녀’라는 기호를 통해 고대적 세계와의 연속성을 획득함으로써 신동엽의 문학은 서구적 근대에 반(反)하는 새로운 비전을 구축해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새로운 우리 이야기를 새로운 대지 위에 뿌리박고 새로운 우리의 생각을, 새로운 우리의 사상을, 새로운 우리의 수목을 가꿔가려 할 때 세상에 준비한 잡담들의 삼림은, 그리고 생경한 낯선 토양은 우리의 작업을 기계적으로 방해할 것이다. 황량한 대지 위에 우리의 터전을 마련하고 우리의 우리스런 정신을 영위하기 위해선 모든 이미 이루어진 왕궁, 성주, 문명탑 등의 쏘아 붓는 습속적인 화살발을 벗어나 우리의 어제까지의 의상, 선입견, 인습을 훌훌히 벗어던진 새빨간 알몸으로 돌아와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중략...) 그리하여 대지 위에 다시 전경인의 모습은 돌아와 있을 것이고 인류 정신의 창문을 우주 밖으로 열어두는 서사시는 인종의 가을철에 의하여 결실되어 남겨질 것이며 그 정신은 몇 만년 다음 겨울의 대지 위에 이리저리 물려다니는 바람과 같이 우주지(宇宙知)의 정신, 리(理)의 정신, 물성(物性)의 정신으로서 살아남아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곧 귀수성 세계 속의 씨알이 될 것이다.²³⁾

박사논문, 2008, 104쪽.

- 22) 김희정은 ‘아사달-아사녀’를 바디우가 주장하는 ‘사건의 주체’로 해석한다. “4·19의 현장에 출현한 정체불명의 비정합적 다수를 혁명 주체로서의 ‘우리들’로 묶어내면서도 개별적인 현시를 억압하거나 제한하지는 않는, 그리하여 이들의 무리를 일자로-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자로-셈해지지 않는 그들의 존재의 비일관성을 모두 포괄하는 비어 있는 기표로서 기능하는 것이 바로 ‘아사달-아사녀’라는 이름인 것이다.” 김희정, 앞의 논문, 85쪽.
- 23) 신동엽, 『시인정신론』, 강형철·김윤태 엮음, 『신동엽 산문전집』, 창비, 2013, 90-91쪽.

산문 『시인정신론』의 핵심 내용은 원수성(原數性), 차수성(次數性), 귀수성(歸數性) 세계의 구분을 통해 현대문명의 근본적 성격을 분석하고, 차수성의 세계에 속한 현대의 인류가 “귀수성 세계의 대지로 쏠아져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차수성의 세계에서 “인간들은 대지에 소속된 생명일 것을 그만두고 대지와 그들과의 사이에 새로 생긴 딱잎 위에, 즉 인위적 건축 위에 작소(鵲巢)되어진 차수성적 생명”으로 살아가며, 그로 인해서 “우리 문명된 시대의 도시 하늘을 짓누르고 있는 불안, 부조리, 광기성 등은 다름 아닌 나무 끝 최첨단에 기어오른 뜨물들의 숙명적 심정”에서 해방되지 못한다. “하나의 전경인적인 귀수적인 지성으로서 합일”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신동엽에게 ‘전경인’은 “인간의 모든 원초적 가능성과 귀수적 가능성을 한 몸에 지닌” 대안적 존재를 가리킨다. 이러한 주장들과 시적 지향 때문에 신동엽은 김수영에게서 “50년대에 모더니즘의 해독을 너무 안 받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신동엽의 시와 산문은 ‘문명=악’, ‘자연=선’이라는 이분법처럼 읽히는 경우 많다. 다만 같은 시기에 유치환이 동양사상(노장)에 기대어 주장한 종합적 세계에 대한 지향과 분업화·과편화를 기본으로 하는 현대문명에 대한 신동엽의 비판 간에는 상당한 친화력이 존재하는데, 이는 이 시기 시인들 다수가 현대라는 새로운 역사적 조건의 출현 앞에서 그것을 부정하고 과거 - 시간적 의미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합일의 세계 - 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1960년대는 근대화 모델이 본격화된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서구적 근대에 대한 문학적 응전이 자생적 민족 담론의 형태를 띠고 등장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런데 신동엽의 시인정신론은 ‘근대’의 극복, 그리고 ‘서구=보편’의 등식과 거리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문명비판론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신동엽에게 ‘귀수성’이 지시하는 대지의 세계는 서구적 근대의 한계를 돌파한 지점이라는 점에서 문명사적 비전에 해당되며, 특히 급격한 도시화·

공업화의 폐해는 물론 ‘문명’의 이기(利器)가 불러오는 가장 끔찍한 경험인 침략과 전쟁이 종결된 이후의 세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반전·반근대·비서구 사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²⁴⁾ 이처럼 신동엽은 한국전쟁을 서구-문명에 의해 저질러진 비(非)서구에 대한 침략으로 이해함으로써 냉전과 반공주의에 함몰되지 않는 것은 물론 ‘근대’와 ‘외세’에 대한 비판을 자연스럽게 연결했다. 가령 “수운이 말하기를/한반도에 와 있는 쇠붙이는/한반도의 쇠붙이가 아니어라/한반도에 와 있는 미움은/한반도의 미움이 아니어라/한반도에 와 있는 가시줄은/한반도의 가시줄이 아니어라.”(『수운(水雲)이 말하기를』) 같은 진술은 신동엽이 전쟁과 분단으로 요약되는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이방인들이 대포 끌고 와/강산의 이마 금 그어놓았을 때도/그 벽(壁) 핑계 삼아 딴 나라 차렸던 건/우리가 아니다”(『조국』)라는 구절에서 드러나듯이 신동엽은 한반도의 전쟁과 분단을 ‘강대국=이방인’의 행위로 인식한다. 이것들만이 아니다. “절량(絶糧)과 실업(失業)이 민족 전체의 표정”(『60년대의 시단 분포도』(1961)), “과연 코리아적 곡식이 심어진 의욕 찬 평야를 눈여겨보고 하는 소리들인가.”(『시와 사상성』(1963)), “만약에 발레리가 남북이 피투성이가 되어 싸우고 있는 금일의 조선에 생존하여 그의 절친한 가족의 하나가 어느 편한테 희생되었다고 하자. 그래도 발레리는 그러한 난해의 시를 썼을까.”(『발레리의 시를 읽고』(1951)) 같은 표현처럼 그는 한반도의 역사를 민중·민족의 수난사이자 억압에 대한 저항의 역사로 이해한다. 나아가 그는 ‘시인’을 “민중 속에서 흙탕물을 마시고, 민중 속에서 서러움을 숨쉬고, 민중 속에서 민중의 정열과 지성을 직조(織造)·구제할 수 있는 민족의 예언자, 백성의 시인”²⁵⁾이라고

24) 대표적인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석영, 『신동엽 시의 서구 지배담론 거부와 대응』, 『상허학보』 14, 상허학회, 2005.; 이경수, 『‘아사녀’의 행방: 신동엽의 탈식민적 글쓰기』, 『불온한 상상의 축제』, 소명, 2004.; 고명철, 『신동엽과 아시아, 대지의 상상력』, 김응교 편, 『신동엽: 사랑과 혁명의 시인』, 글누림, 2011.

25) 신동엽, 『60년대의 시단 분포도』, 강형철·김윤태 엮음, 앞의 책, 113쪽.

생각했다.

하루해
너의 손목 싸쥐면
고드름은 운하 이편서
녹아버리고

풀밭
부러진 허리 꺾 건지다보면
밑둥 긴 폭포처럼
역사는 철철 흘러가버린다.

피 다순 쪽지 잡고
너의 눈동자, 영(嶺)을 넘으면
완충지대는,
바심하기 좋은 이슬 젖은 안마당.

고동치는 젓가슴 뿌리 세우고
치솟은 삼립 거니노라면
초연(硝煙) 걷힌 발두덕 가
풍장 올려라.

- 「완충지대」 전문

신동엽에게 ‘쇠붙이’, ‘쇠항아리’, ‘철조망’ 등의 현대문명은 부정의 대상으로 간주된다. 이는 그것들이 침략, 살육, 전쟁, 개발/파괴같이 자연적 질서의 세계에 인위적·폭력적 변화를 야기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그는 부정적 문명의 반대편, 즉 긍정적인 대안으로 ‘중립’의 세계를 제시한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가 이 대안적 세계에 ‘중립’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시집 『아사녀』에 수록된 인용시에서 시인은 이상적 공간을 ‘중립’이 아니라 ‘완충지대’라고 표현하고 있다. 완충지대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이 시는 1959년 11월 2일자 『세계일보』에 「새로 열리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발표되었다가 시집에 수록되는 과정에서 「완충지대」로 바뀌었다.²⁶⁾ 개작(改作)의 이유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시인은 제목을 ‘새로 열리는 땅’에서 ‘완충지대’로 바꾸고, 3연에 등장하는 이상적 공간을 ‘정전지구’에서 ‘완충지대’로 수정했다. ‘새로 열리는 땅’이라는 제목의 느낌처럼 시인에게 ‘정전지구/완충지대’는 대안적 세계/공간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니, 이는 비슷한 시기에 쓴 「향(香)아」에서 “오래지 않은 옛날”, 즉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바심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대로 가자 달이 뜨는 명절 밤 비단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에 등장하는 세계와 동일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완충’의 의미는 단순한 ‘정전’ 상태를 넘어선 것”²⁷⁾이라거나, “‘정전지구’가 전쟁이 잠시 중단된 지점이자 새로운 상황의 가능성이 잠재된 장소를 의미했다면, 이 시기의 ‘완충지대’는 전쟁의 극단적 적대를 해소시킬 집단적 실행이 실제로 수행되는 변화의 국지적 지점들을 의미”²⁸⁾한다는 해석도 있지만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다.

시인이 ‘정전’을 ‘완충’으로 바꾼 것은 표면적인 의미의 변화가 강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표현하려던 내포적 의미나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혹은 4·19 이전과 이후에 생각이 달라진 탓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전’이 ‘완충’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시의 ‘제목’을 바꾸었다는 점이다. 문학작품에서 제목이 갖는 의미를 고려할 때 제목 자체를 바꾸었다는 것은 흥미로운 대목이다. 6·25를 직접 체험한 세대의 한 사람으로 신동엽에게 ‘휴전’

26) 『신동엽 시전집』(창비, 2013)에서는 「완충지대」(1963)와 「새로 열리는 땅」(1959)을 유사한 작품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동일한 작품의 수정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27) 김윤태, 「신동엽 문학과 ‘중립’의 사상」, 구중서·강형철 편, 앞의 책, 201쪽.

28) 김희정, 앞의 논문, 99쪽.

이나 ‘정전’ 같은 단어는 그다지 낯선 말이 아니었을 것이다. 정치, 외교, 군사 영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해온 완충지대(buffer zone) 역시 마찬가지이다. 오늘날에는 비무장지대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므로 ‘완충지대’라는 표현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1950~60년대에는 완충지대라는 말이 정치, 군사 분야에서 공식적인 용어로 쓰였다. 즉 전쟁이 끝난 직후에는 ‘정전’이라는 표현이 와 닿는 표현이었겠지만 60년대에는 이미 ‘정전’이라는 표현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었을 수도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 시에서 신동엽이 표현하고자 한 내용이다. 이 시에 대한 선행 연구의 대부분은 ‘정전’이 ‘완충’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뿐 정작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반면 이 작품을 자세히 분석한 경우도 있는데, 한 연구는 이 시에서의 ‘너’를 “처참한 전투에 희생당한 인물”²⁹⁾로 해석하고 ‘완충지대’가 “전투의 처참함”과 대비된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연구는 이 시에서 “시적 자아는 ‘완충지대’가 팽팽한 긴장을 가져오는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긴장을 완화시키는 과정으로 그려냄으로써 이질적인 비극의 역사를 극복하려는 의미로 전환시킨다. 그러므로 ‘완충지대’라는 명사적 의미의 대상은 재해석되어 시인 자신이 지닌 독자적인 세계관을 형성한다.”³⁰⁾라고 주장한다. 특히 후자의 해석은 ‘완충지대’를 전유한 시인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적절한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완충지대’의 원제(原題)가 ‘새로 열리는 땅’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1960년대 신동엽의 시에서 이상적 세계는 대개 토포스(topos)의 관점에서 상상된다.³¹⁾ 토포스는 다양한 생명 일반의 ‘근거’라는 점에서 물리적 성질의 공간과 다르다. 이 시의 공간적 배경, 즉 장소는 오늘날의 비무장지대, 즉 ‘완충지대’이다. 군사적 의미에서 ‘정전지구’나 ‘완충지대’는 일시적이거나 대립이나 충돌을 중단시키려는 목적에서 만들어

29) 이승규, 『김수영과 신동엽』, 소명출판, 2008, 181쪽.

30) 양은창, 『신동엽 시의 서정 양상』, 김웅교 편, 앞의 책, 173쪽.

31) 토포스(topos) 개념에 대해서는 나카무라 유지로, 박철은 옮김, 『토포스: 장소의 철학』, 그린비, 2012 참고.

진 기능적 공간이다. 그런데 시인은 기능적인 이유에서 형성된 그곳에 ‘새로 열리는 땅’이라는 신생(新生)의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니까 명칭이나 기능과 상관없이 시인은 그 공간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읽어내고 있으니, 이는 현실에 존재하는 군사적 공간을 상상을 통해 이상적 공간으로 전유한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신동엽의 시에서 공간은 지속적으로 장소로 전유된다. 요컨대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정전’이 ‘완충’으로 바뀌었다는 표면적인 사실이 군사적 용도로 설정된 공간을 이상적 공간으로 바뀌는 시인의 상상력이다. 그렇다면 왜 시인은 이상(理想)과 동떨어진 ‘완충지대’를 이상적 세계로 상상하고 있는 것일까? 추측건대 시인은 그 공간을 냉전과 분단의 상흔이 아닌 일체의 무기, 갈등, 대립, 충돌이 사라진 세계의 원형으로 상상한 듯하다. 다만 그곳이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세계일 수 있는 이유는 공간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주체의 행동에서 비롯된다. ‘하루’라는 시간동안 “너의 손목을 싸 쥐”면 ‘고드름’이 녹을 것이라는 것, 풀들의 부러진 허리를 건져내면 불행한 역사가 이내 흘러가버릴 것이라는 것, 너의 눈동자가 영(嶺)을 넘어오면 완충지대는 군사지역이 아니라 곡식을 떨어서 거두기 좋은 마당이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마침내 화약 연기가 걷힌 발독에서는 풍년을 기원하는 풍장소리가 울릴 것이라는 것이 시인이 상상하는 내용이다. 이 시에 등장하는 ‘너’와의 만남이 “아사달 아사녀의 나란 완충(緩衝), 완충이노라고.”(『주린 땅의 지도원리』)와 일맥상통함은 물론이다.

(1) 비로소, 허면 두 코리아의 주인은 우리가 될 거야요. 미워할 사람은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들끼리 실컷 미워하면 되는 거야요. 아사녀와 아사달은 사랑하고 있었어요. 무슨 터도 무슨 보루(堡壘)도 소제(掃除)해버리세요. 창칼은 구워서 호미나 만들고요. 담은 혈어서 토비(土匪)로 나 뿌리세요.

비로소, 우리들은 만방에 선언하려는 거야요. 아사달 아사녀의 나란

완충(緩衝), 완충이노라고

- 「주린 땅의 지도(指導) 원리」 부분

(2) 그 반도의 허리, 개성에서
금강산 이르는 중심부엔 폭 십리의
완충지대, 이른바 북쪽 권력도
남쪽 권력도 아니 미친다는
평화로운 논밭.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
자다가 참
재미난 꿈을 꾸었어.

그 중립지대가
요술을 부리데.
너구리 새끼 사람 새끼 곰 새끼 노루 새끼 들
발가벗고 뛰어노는 폭 십리의 중립지대가
점점 팽창되는데,
그 평화지대 양쪽에서
총부리 마주 겨누고 있던
탱크들이 일백팔십도 뒤로 돌데.

(...중략...)

꽃 피는 반도는
남에서 북쪽 끝까지
완충지대,
그 모오든 쇠붙이는 말끔히 씻겨가고
사랑 뜨는 반도,
황금이삭 타작하는 순이네 마을 돌이네 마을마다
높이 높이 중립의 분수는
나부끼데.

-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 부분

(1)은 1963년 『사상계』 11월호에, (2)는 1968년 『창작과비평』 여름호에 각각 발표되었다. (1)에서 시인은 “자전거 탄 신사”, “고등식(高等食)을 배불린 해외족(海外族)” 같은 권력의 형상을 대신하여 아사달과 아사녀의 ‘사랑’을 대안적 사건으로 제시한다. 그런데 이때의 ‘사랑’은 한편으로는 걷어치우는 것, 즉 자신들의 맨살을 덮고 있는 “두드러기며 딱지며 면사포며 낙지발들을 면도질”하는 것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채우는 것, “제주에서 두만까지 땅과 백성의 웃음으로”, “젊은 아사달들의 아름다운 피꽃으로 채워”버리는 것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걷어치움과 채움의 과정은 뒤에서 ‘터’와 ‘보루’를 소제하는 것, ‘창칼’을 녹여 ‘호미’로 만드는 것, ‘담’을 털어서 ‘토비(土肥)’로 만드는 일로 변주된다. 칠탁과 살상의 무기인 ‘창칼’을 농경의 도구인 ‘호미’로 만들고, 분리와 차별의 상징인 ‘담’을 허물어 토지를 비옥하게 ‘토비(土肥)’로 사용한다는 상상에는 시인이 바라는 이상적 세계가 함축되어 있다. 시인은 이러한 이상적 세계, 즉 아사달과 아사녀의 나라를 가리켜 ‘완충(緩衝)’이라고 쓰고 있다.

한편 (2)에서 화자는 자신이 꿈 ‘재미난 꿈’에 관해 이야기한다. 이 시에서 ‘꿈’은 현실법칙을 벗어난 세계, 화자가 희망하는 이상적 세계를 가리킨다. 이 시는 전체 8연으로 이루어졌는데 3연에서는 ‘완충지대’가, 5연에서는 ‘중립지대’와 ‘평화지대’가, 7연에서는 ‘완충지대’와 ‘중립’이 각각 이상적 세계의 표상으로 쓰이고 있다. 앞에서 살폈듯이 ‘정전지구’가 ‘완충지대’로, 그것이 다시 ‘중립’으로 변해온 반면, 여기에서는 ‘중립’과 ‘평화’와 ‘완충’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시인은 ‘완충지대’를 “북쪽 권력도/남쪽 권력도 아니 미친다는 평화로운 논밭”과 “그 모오든 쇠붙이는 말끔히 씻겨가고/사랑 뜨는 반도”로, ‘중립지대’를 “너구리 새끼 사람 새끼 곰 새끼 노루 새끼 들/발가벗고 뛰어노는 폭 십리”의 공간으로 형상화한다. ‘너구리’와 ‘사람’과 ‘곰’을 나란하게 배열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세계는 인간과 동물이 조화를 이루는 이른바 원초적 세계로 상상된다. 물론 ‘재미난 꿈’(1연)이 “허망하게 우스운 꿈”(8연)으로 귀

결된다는 점에서 이 상상의 현실화가 불가능할 것임을 시인도 모르지 않지만, ‘중립지대’가 점점 팽창되어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설정은 신동엽 식의 ‘중립화통일론’이라고 단정해도 과장은 아닐 것이다. 특히 ‘정전’과 ‘완충’ 등으로 표현되던 이상적 세계에 대한 지향이 1964년 이후 ‘중립’으로 표기된 것은 4·19 이후에 본격화된 ‘중립화통일론’의 영향으로 읽을 수도 있을 듯하다. 즉 ‘중립화통일론’의 주요 논자인 김삼규가 중립화(중립국)를 “어느 나라와도 군사적 동맹을 맺지 않고 또 어느 나라에게도 군사 기지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국시로 하는 나라”³²⁾라고 설명한 것을 신동엽은 “모오든 쇠붙이가 말끔히 씻겨”나간 공간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신동엽은 4·19를 ‘민족’의 맥락에서 해석했고, 한일회담 국면에서도 현대문명과 외세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민족·분단·통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사유한 듯하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현대문명과 외세의 본질에 대한 사유를 촉발시키지만 동시에 <좋은=자연 vs. 나쁜=문명>, <민족=선 vs. 이방인=악>이라는 단순화된 대립을 재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김수영이 신동엽의 시를 뛰어난 참여시로 평가하면서 “그가 쇼비니즘으로 흐르게 되지 않을까”³³⁾ 염려하는 것에도 이유가 없지 않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동엽은 1959년 11월에는 ‘정전지구’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그 작품을 1963년 시집에 수록할 때에는 ‘완충지대’로 고쳤고, 같은 해 11월에 발표한 작품에서도 ‘완충지대’라는 표현을 썼다. 하지만 1968년 여름에 발표한 작품에서는 ‘완충지대’, ‘중립지대’, ‘평화지대’라는 표현을 동시에 사용했다. 그렇다면 그의 대표작으로 알려진 『껍데기는 가라』의 경우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동안 이 작품은 1967년 신구문화사에 출간한 『52인 시집』에 처음 수록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2014년 한 언론을 통해 1964년 12월 『시단』 제6집에 최초로

32) 김삼규, 『중립화 통한론을 해명한다』, 이병주 편, 『중립의 이론』, 셋별출판사, 1961, 172쪽.

33) 김수영, 『참여시의 정리』, 이영준 편, 앞의 책, 495쪽.

발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신동엽은 1964년 동인지에 실었던 작품을 수정·개작하여 『52인 시집』에 수록했고, 그 과정에서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라는 표현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신동엽은 자신이 꿈꾼 새로운 세상의 이름을 <정전지구(1959)-완충지대(1963)-중립(1964)-완충지대, 중립지대, 평화지대(1968)> 순으로 변형하면서 사용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정전지구’가 ‘완충지대’로 바뀌는 사이에 ‘4·19’가 있었고, ‘완충지대’가 ‘중립’으로, 또는 ‘완충지대, 중립지대, 평화지대’로 바뀌는 중간에는 ‘한일회담’ 반대운동이 있었던 셈이다. 흔히 6·3항쟁이라고 불리는 한일회담 반대운동은 “4·19를 통해 ‘4월의 젊은 사자’로 태어난 대학생이 비로소 독자적 문화와 독자적 저항양식을 갖게 됐다는 사실을 응변하는 사건”³⁴⁾으로 평가되는데, 이 시기에 중립화통일론이 중요한 논점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정치적 국면의 변화가 시적 상상력의 변화를 추동했다고 짐작해볼 수도 있을 듯하다. 신동엽은 1967년에 1964년에 발표한 작품을 수정하여 다시 한 번 ‘중립’을 노래했다. 주지하듯이 1967년은 남북 간의 군사적 갈등이 정점에 도달한 시기였다. 1967년 1월 한국 해군의 당포함이 북한의 포격을 받고 침몰한 사건을 시작으로 5월에는 서부전선의 미군 막사가 공격을 받았고, 8월에는 판문점 남쪽 ‘자유의 마을’에 매복한 북한군이 미군을 습격·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1968년 1월 김신조 등의 청와대 습격사건으로 이어졌다. 바로 이 시기에 신동엽은 “중립의 초래청”이라는 이상적 공간을 다시 불러내어 통일의 정당성을 환기시켰고, 같은 시기 최인훈은 『서유기』 연재를 통해 ‘중립’의 꿈을 진술했다.³⁵⁾

34) 권보드래·천정환, 『1960년대를 묻다』, 천년의상상, 2012, 84쪽.

35) 위의 책, 272쪽.

5. 나오며

1960년대는 한국사회는 다양한 흐름들이 교차·공존하는 세계였다. 1950년대를 지배한 ‘반공’과 1960년대를 상징하는 ‘자유’와 ‘민족’이 공존했고, 4·19와 5·16으로 대표되는 근대화의 두 모델이 공존했으며, 서구적인 근대를 지향하는 흐름과 그것에 대한 비판, 나아가 대안적인 질서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공존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이 문학에 대해 일방적인 영향만을 끼친 것은 아니었다. 사회적·정치적 현실이 문학적 상상력의 변화를 추동하고, 문학이 언어와 상상력으로 역사적·정치적 현실 너머를 모색한 시기가 바로 1960년대였다. 신동엽은 이러한 시대가 개막되는 시기에 문단에 나와 한 시대의 중심에서 현실과 맞서 싸우며 이상적 세계에 대한 지향을 노래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의 시에서 이상적인 세계, 즉 토포스(topos)를 지시하는 명칭이 ‘정전지구’에서 ‘완충지대’로, 다시 ‘중립’을 거쳐 ‘완충지대, 중립지대, 평화지대’로 확산·변화된 것은 1960년대의 정신사가 그의 문학에 새긴 흔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신동엽 문학은 서구적 근대와는 다른 층위에서 남북을 아우르는 한반도, 나아가 근대문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으며, 이러한 그의 비전은 동학(東學), 아나키즘, 생태주의, 평화사상, 제3세계론 등의 다양한 사상과 더불어 논의가 확장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신동엽이 꿈꾸었던 이상적 세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상의 영향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인지, 또는 다양한 사상들과 신동엽의 사유 간의 동일성과 차이를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작업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작업들이 충분히 해명될 때 비로소 신동엽의 시세계가 1960년대 문학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한층 명확하게 드러나리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강형철·김운태 엮음, 『신동엽 시전집』, 창비, 2013.

강형철·김운태 엮음, 『신동엽 산문전집』, 창비, 2013.

이영준 편, 『김수영 전집 2: 산문』, 민음사, 2018.

『민족일보』, 1961.4.20.

『새벽』1960년 11월호, 239쪽.

2. 단행본 및 논문

강계숙, 「1960년대 한국시에 나타난 윤리적 주체의 형상과 시적 이념」,
연세대 박사논문, 2008.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편, 『1960년대 문학과 문화의 정치』, 계명대학
교 출판부, 2015.

구중서·강형철 편, 『민족시인 신동엽』, 소명출판, 1999.

권보드래·천정환, 『1960년대를 묻다』, 천년의상상, 2012.

김경복, 「신동엽 시의 유토피아 의식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64집, 한
국문학회, 2013, 169-205쪽.

김기선, 『한일회담반대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5.

김석영, 「신동엽 시의 서구 지배담론 거부와 대응」, 『상허학보』 14, 상허
학회, 2005, 133-159쪽.

김윤식, 「‘우리’ 세대의 작가 최인훈」, 최인훈, 『총독의 소리』, 문학과지
성사, 1999.

김응교 편, 『신동엽: 사랑과 혁명의 시인』, 글누림, 2011.

김응교, 『좋은 언어로』, 소명출판, 2019.

김희정, 「신동엽 시에 나타난 정치적 진리 절차 연구」, 이화여대 박사는

문, 2019.

- 나카무라 유지로, 박철은 옮김, 『토포스: 장소의 철학』, 그린비, 2012.
- 박지영, 「제3세계로서의 자기 정위(定位)와 ‘신성(神聖)’의 발견: 1960년대 김수영·신동엽 시에 나타난 정치적 상상력」, 『반교어문연구』 39호, 반교어문학, 2015, 465-513쪽.
- 박태순·김동춘, 『1960년대의 사회운동』, 까치, 1991.
- 엄상윤, 「제2공화국 시대의 통일논쟁」, 고려대 박사논문, 2001.
- 이경수, 「‘아사녀’의 행방: 신동엽의 탈식민적 글쓰기」, 『불온한 상상의 축제』, 소명, 2004.
- 이병주 편, 『중립의 이론』, 셋별출판사, 1961.
- 이승규, 『김수영과 신동엽』, 소명출판, 2008.
- 임환모 편, 『1960년대 한국문학』, 태학사, 2015.
- 최현식, 「(신)식민주의의 귀환, 시적 응전의 감각: 1965년 한일협정과 한국 현대시」, 『현대문학의 연구』 70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20, 241-321쪽.
- 하상일, 「신동엽과 1960년대」, 『비평문학』 65집, 한국비평문학회, 2017, 255-279쪽.

<Abstract>

Intellectual History of the 1960s and Newly Emerging Topos

- Changes in Poem Written by Shin Dong-yeop before
and after April 19 Revolution and Protests against
Korea-Japan Summit

Ko, Bong-Jun*

The 1960s occupies a special place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During this period, two models of modernization—people's yearning for 'freedom' and 'nationality' triggered by the April 19 revolution and technism purported by those who led the May 16 military coup—crashed hard. Throughout the 1960s, the reality of social changes stimulated literary imagination, and literature surmounted ideological taboo and provided a vision on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and an ideal world. Kim Suyoung and Shin Dongyeop have been seen as poets that represented literature of the 1960s. This study discusses characteristics of Shin Dongyeop's poem from the 1960s in relation to social changes as represented by the April 19 revolution and protests against the Korea-Japan summit. Before 1960, his poem embodied the poet's negative perception of the reality at an ideological level or stated his conviction and resolution to overcome the reality. The negative perception of the reality was born from his experience of the war. By 1959, when he was about to debut, his

* KyungHee University.

poem began to show historical consciousness. Around this time, the poet termed his idea of an ideal world as ‘ceasefire district’, and after the April 19 revolution, he revised the term to ‘buffer zone’. When he first published ‘Go Away Shell!’ in 1964, he described the ideal world as a ‘neutral’ place, and then in 1968, called the ideal world of the same overtone in three different terms of ‘buffer zone, neutral zone, peaceful zone’ at the same time. That is, in the poet’s work, ‘ceasefire district’ changed to ‘buffer zone’ after the April 19 Revolution, which went on to diversify into ‘buffer zone, neutral zone, peaceful zone’ following protests against the Korea-Japan summit. Around the time Shin Dongyeop wrote about a ‘neutral’ place, novelist Choi Inhun also expressed his dreams about a ‘neutral’ place in his series novel, and from this fact, it can be derived that the poet’s change of terms indicating an ideal world reflected the influence of the reality on literature.

Key Words : ceasefire district, peaceful zone, buffer zone, neutral place, liberty, nation, Shin Dong-yeop.

■ 논문접수 : 2020년 2월 27일

■ 심사완료 : 2020년 4월 14일

■ 게재 확정 : 2020년 4월 17일

